

2019학년도 하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9. 6. 22. ~ 7. 19.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저희는 처음 일주일간 Subic Language Center, 즉 SLC라는 곳에서 수업을 듣고, 머무르다가 기숙사 누수의 문제로 Subic Holiday Villas라는 곳에서 지내며 그곳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p> <p>먼저 SLC는 기숙사와 클래스 룸들이 한 건물에 있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클래스 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실을 찾아다니는 것이 조금 헛갈릴 수 있지만, 곧 적응되면 잘 찾을 수 있습니다.</p> <p>건물 자체는 조금 오래되어 보이지만, 에어컨도 잘되고, 와이파이도 생각했던 것 보다는 잘돼서 괜찮았습니다. 가끔씩 도마뱀도 보고, 각종 벌레들도 나왔지만 저는 애초에 벌레를 별로 무서워하는 편이 아니어서 별로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가서 바퀴벌레 약을 하나 구입하시면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p> <p>또 귀여운 고양이들이 있는데 사람을 잘 따르고, 순합니다. 많이 예뻐해주세요.</p> <p>수빅 홀리데이 빌라의 시설은 깔끔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엄청 큰 실외 풀도 있었고요. 하지만 핸드폰 데이터가 잘 안 터지고, 객실 내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졌습니다. 또 그 전에는 각 수업마다 분리된 방이 있어서 오롯이 그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곳에서는 1:1수업 교실이 따로 분리되지 않았고, 파티션을 친 채로 수업을 들어야 해서 소음이 많았습니다. 그룹 클래스도 마찬가지였고요.</p> <p>하지만 건물을 급하게 옮겼음에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소음이 차단될 수 있게 여러모로 노력해 주신 게 눈에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그것 빼고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수업</p>	<p>우선 도착하시면 바로 레벨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레벨 테스트는 토익 이랑 문제 구성은 다른데 비슷한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p> <p>그 레벨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달 동안 그룹수업을 같이 듣게 될 그룹원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귀찮다고 대충 치시지 말고 열심히 보세요. 저는 저희 그룹원들에게 좋은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p> <p>수업은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있으며, 50분동안 수업을 듣고, 10분은 이동 겸 쉬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스케줄이 뻑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대학에서 한시간 반, 세시간 강의로 단련되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갈 겁니다.</p> <p>그룹수업은 하루에 토익 스피킹 두 번, Face to Face (문법 수업) 한 번, MMC (광고와 뮤직비디오 만드는 수업), 이렇게 3가지를 듣게 되고 총 세분의 그룹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p> <p>1:1 수업은 Voca 두 번, Reading 두 번, 이렇게 하루에 총 네 번의 1:1 수업이 있습니다. 1:1 선생님은 학생들마다 다른 선생님이 배정되고요. 한 학생 당 총 네 명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p> <p>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다들 너무 능력 있으시고,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 오십니다. 또 하루에 한시간 정도는 한 선생님과 무조건 말을 하게 되니깐, 정이 안 붙을래야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p> <p>꼭 한국에서 선물과 편지지를 준비해오세요. 한국의 특색이 드러난 선물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기를 보고 반신반의해서 선물을 준비해갔는데, 정말 잘 사갔다 싶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필드트립</p>	<p>매주 화요일마다 3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없고, 액티비티 시간이 있었는데요.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같이 게임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편 프라이데이라고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미니언즈 데이", "크레이지 글래시스데이", "스트라이프 데이" 이렇게 세 번의 편 프라이데이를 지냈습니다.</p> <p>또 매주 토요일은 단체로 투어를 다녔는데, 첫째 주 액티비티는 화이트 코랄 리조트에 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거의 취소될 뻔했지만, 날씨가 괜찮아져서 다행히 갈 수 있었는데요.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큰 야외 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영하기 정말 좋아요.</p> <p>둘째 주는 마운틴 써맛이라는 곳에 갔는데, 가서 랜덤으로 짜여진 조원들과 미션을 수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엄청 큰 십자가가 있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사진찍기 좋아요. 포토 스팟입니다.</p> <p>마지막으로는 요트 투어를 갔는데, 일단 썬크림을 많이 바르세요! 또 바</p>

	다에서 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옷 입고 사진 많이 건지세요.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저희가 필리핀에 간 날은 우기여서 그런지 비가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계속 반복해서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비 오면 그 다음 날씨는 화창하니 좋았어요. 우산은 가서 싼 거 사서 쓰다가 버리고 오면 좋고, 아니면 집에 작은 우산 있다 하시면 가져와서 사용하세요. 저는 공항에서 처음 내릴 때 사우나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적응될 뿐만 아니라 실내는 에어컨이 잘 되어있어서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미니 선풍기 가져오면 좋아요.</p> <p>저는 긴 팔도 입고 반팔도 입었는데요 한국의 여름과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p>
안전	<p>마트나, 쇼핑몰, 심지어 스타벅스 안에도 경비원들이 계십니다. 또 큰 물 같은 데를 들어가려면 간단한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수빅 도시 곳곳에 경비원 혹은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p> <p>간혹 가다 한국인을 신기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뚱어저러 쳐다보거나, 인사하면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경우에는, 무시하거나 가볍게 받아주면서 넘어가면 됩니다.</p>
숙소	<p>SLC-침대가 하나씩 있고, 침대 옆에 공부할 수 있는 간이 책상과 의자가 하나씩 있다. 벌레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와이파이 잘 터짐</p> <p>홀리데이-시설은 매우 깨끗하고 좋았으나 와이파이 안되고 데이터 잘 안 터짐 (매우 느림) 하지만 깔끔하고 시설 좋은 호텔에서 장기 투숙</p>

	<p>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음</p>
<p>식사</p>	<p>학교 식당은 한식 위주로 급식판에 나옵니다. "이다"라는 급식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한국인의 손맛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점심은 거의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이제 나가서 먹어도 되고 학교에서 먹어도 됩니다.</p> <p>일단 가볍게 먹고 싶다 하면 "졸리비"라는 패스트푸드점 가시면 되고, 하버포인트라는 큰 몰 안에 있는 "페퍼런치" "제리스 그릴"도 괜찮습니다. 수빅 베이 쪽에 있는 "텍사스 조"는 스테이크 파는 곳인데 가격대가 꽤 있으나 맛있고, "미트 플러스"는 텍사스 조보다 저렴한데 맛있었습니다. 또 수빅베이 근처에 "익스트림"이라는 피자집도 추천해요. 피자도 크고, 까르보나라 맛집입니다.</p> <p>한식을 먹고 싶으면 홀리데이 빌라 근처에 "오누이"라는 곳이 있는데 반찬이 무척 맛있습니. 하지만 SLC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을 거예요. 하버바로 맞은편에 "갈비 냉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삼겹살 먹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p> <p>술집은 수빅베이 근처에 많은데요. 저는 "피어원"이라는 곳과 "리버티"라는 곳 주로 갔습니다. "피어원"은 약간 유명한 노래 불러주는 큰 라이브 공연장 같은 느낌이고, "리버티"는 노래 선곡을 잘합니다. 수빅베이 근처에 괜찮은 곳 많으니깐 찾아서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p>
<p>교통</p>	<p>저희는 주로 택시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FB는 타보고 싶었으나, 이사를 가는 바람에 택시 아니면 시내(하버포인트, sm몰)에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p> <p>SLC에서 하버포인트까지 가는데 5명이서 150정도 내고 다닌 걸로 기억합니다. 200부르면 타지 마세요.</p> <p>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뭔가 많이 부른다 싶으면 안 타겠다는 제스처를 해야지 깎아줍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총	430달러	저는 애초에 환전을 남들보다 적게 해갔으나, 부족함 없이 쓰고 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편하게 쓰려면 500정도 환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가볍게 가서 무겁게 돌아오세요. 선생님들 선물과 편지지는 8개정도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가서 사기에는 거기서 생활하기에도 돈 많이 들어가는데 선물까지 사려면 부담스러워서 좋은 것 못 해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자신 스스로 아쉽고, 후회해요. 저는 미리 준비해 갔는데, 주위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우산이나, 샴푸 이런 거는 가서 사서 쓰고 버리고 와도 되구요. 종합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물갈이 할 수도 있어서), 버물리 등 각종 상비약 챙기면 도움될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면 탐폰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거기서 탐폰은 안 팔아요. 저는 물놀이 좋아해서 혹시나 하고 챙겨 갔는데 여기저기 빌려주고, 저도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들리려면 출국 전에 인천공항에서 들리세요. 클락 공항은 매우 작아서 면세점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매우 작거나요.

그리고 풀 숲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불개미 집을 잘못 건드려서 한동안 무척 고생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우선 저는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에 혼자 지원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원하고 한달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괜히 지원한 게 아닌가 오만

가지 생각도 다 들었을 정도로 심란했어요. 하지만 막상 가서 한달을 살고 돌아와보니 꿈에 필리핀이 나올 정도로 좋은 추억들로만 가득했습니다.

가서 만난 좋은 친구들, 룸메이트들, 열정적이었던 우리 그룹원들, 보고싶은 선생님들까지. 이렇게까지 정 들 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놀기도 놀았습니다. 비 오는 날 수영하면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고 미친듯이 웃었고, 영화 스파이더맨이 개봉해서 친구들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마사지도 받고, 네일도 해보고, 또 선생님들과 외출해서 같이 저녁도 먹었습니다.

Mmc 뮤직비디오, 광고를 찍기위해 고생했지만, 여장한 그룹원들을 보고 엄청 웃었던 기억도 나네요. 마지막으로 졸업식날 헤어지는 게 아쉬워 평평 우시는 선생님들을 보고 절대 안 울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울었습니다.

한달이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매우 길다고 생각했는데, 지내다 보니 매우 짧더군요. 이곳에 와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의 한달이 정말 꿈 같았습니다. 정말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다시한번 필리핀에 가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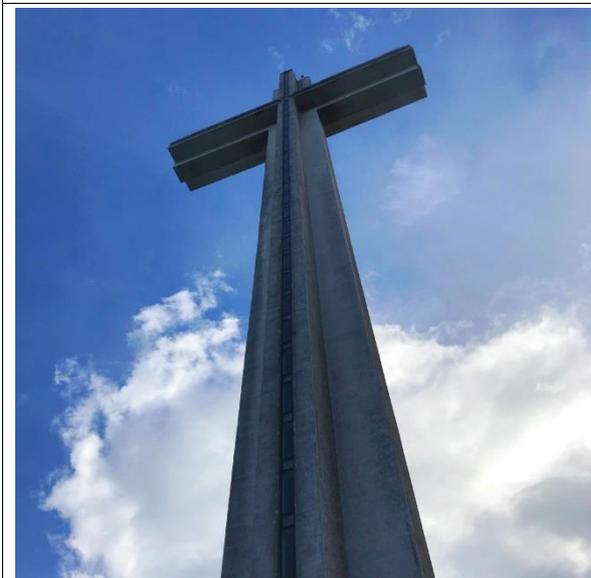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첫번째 편프라이데이 <미니언즈 데이>
그룹원들과



화이트 코랄 리조트에서 친구들과



마운틴 씨앗- 큰 십자가



선생님, 그룹원들과 미트플러스



하버포인트 시네마에서 스파이더맨 보기



필리핀 떠나기 전 단체사진